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 예방 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ison of Fear and Prevention Behavior on Accident between Mother and Teacher in Family Childcare Center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김혜금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Hye Gum,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fear and prevention behaviors on accidents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 family childcare centers. The participants were 117 mothers whose children were 0~2 year-olds and 121 teachers. Based on Hendrickson(2008) and Reichert & Henricks(1996), the scal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it was composed of fear and prevention behaviors on accid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χ^2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thers feared fall accidents and step-on-accidents while teachers feared suffocation accidents and liability for injury medical fee. Also, mothers did more prevention behaviors on use of car seats than teachers, whereas teachers did more behaviors on walk safety, custody of drugs and dangerous articles, and food safety.

주제어(Key Words) : 안전사고 두려움(fear of accident) 안전사고 예방행동(prevention behavior of accident)
가정보육교사(teacher of family childcare center)

I. 서론

통계청 보도자료(2009. 5. 7)에 의하면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8.7명이며 OECD국가 중 3위였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가정에서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2세이하 영아의 사고로 인한 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8; 한국소비자보호원, 2007).

가정은 영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영아에게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성인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영아에게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발달특성상 영아는 위험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보다 대·소근육 발달이 더 앞서므로 활발한 탐색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더 많이 입는다(Safe Kids Canada, 2006). 또한 영아기는 생의 가장 극적인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 단지내 1층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들이 많이 이용한다. 2008년 12월말 현재 가정보육시설은 15,525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46.3%를 차지하고 보육아동수는 210,438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8.5%를 담당하며, 만 2세이하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91.9%로 매우 높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런데 여성가족부(2006)의 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는 한 해 평균 10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해마다 2,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영아와 관련된 보육시설 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영아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으며 영아돌연사나 질식사사고와 같은 몇 건의 대형사고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영아의 안전사고는 성인 보육자의 소홀한 감독과 안전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영유아의 주변에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전사고는 부모가 영유아의 곁에 있었을 때 더 많이 발생하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2007). 보육시설의 위험한 물리적 환경과 보육교사의 감독 소홀 또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다(여성가족부, 2006; 정인자, 이재연,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특히 영아는 보육자가 잠시라도 방심할 경우 화상, 익수, 골절, 중독, 질식, 운수사고와 같은 심각한 안전사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Mack, Gilchrist, & Ballesteros, 2007; Pickett, Streight, Simpson, & Brison, 2003), 보육자는 영아를 돌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상 받게 되며 영아의 상해 가능성에 두려움을 지닌다. 이로 인해 보육자들은 조금이라도 영아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은 통제하거나 금지하며 영아의 자유로운 탐색을 제한하기도 한다(김대원, 1997; 이희정, 1997; Taylor, Yeates, & Wade, 2001).

이러한 보육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주변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느낄 때 생긴다. 즉 보육자가 위험을 인지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때 두려움을 갖는다(Beaty, 2004, p. 15). 그러므로 영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 보육자는 영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덜 갖지만 안전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의 두려움을 지니게 되고 이는 보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결국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 보육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느끼는 안전사고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 보육자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해 어떠한 측면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자유로운 탐색을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육하는 역량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 보육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연구, 특히 영아를 돌보는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가 느끼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가 생각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가정과 가정보육시설간 영아의 안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안전사고 예방 행동과 관계가 있다(Sinclair, Morrongiello, & Dowd, 2008).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위험을 더 많이 인식하는 보육자가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고(Hendrickson, 2008), 안전에 대한 지식이 적거나 사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육자는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덜 한다(Morrongiello, Midgett, & Shields, 2001; Powers & Chapieski, 1986; Schwebel & Bounds, 2003; Schwebel & Brezaussek, 2004; Tertinger, Greene, & Lutzker, 1984).

대부분의 보육자들은 영아의 안전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아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만(Hendricks & Reichert, 1996), 안전사고를 성장과정의 자연스런 일부로 인식하는 보육자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Langley & Silva, 1982; Morrongiello & Dayler, 1996). 이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험을 방치하여 영아를 위험에 노출되게 하거나(Gulotta & Finney, 2000), 상해 경험을 통해 영아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거나(Lewis, DiLillo, & Peterson, 2004), 영아기 자녀의 발달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영아 스스로 위험을 알고 피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Morrongiello, Ondejko, & Littlejohn, 2004).

영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사고 예방 행

동은 영아의 안전한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안전사고 두려움과 안전 사고 예방 행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영유아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을 뿐 영아나 가정을 포함한 연구(김혜금, 2008; 김혜금, 김명순, 2007)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유아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도 보육시설 안전실태(남혜경, 2002; 신동주, 2001; 이수재, 이진숙, 2006; 이순자, 2006; 이재연, 1995; 정인자, 이재연, 1998; 하나미,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홍혜경, 지성애, 김영옥, 1998; 황옥경, 2004), 보육시설 안전교육(김영옥, 홍혜경, 지성애, 1999; 성은현, 윤선화, 정운경, 2002;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 1997),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신념, 실천(박영래, 김경희, 최미혜, 2006; 이은경, 안효진, 2006), 그리고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홍명희, 정영숙, 장혜자, 2004) 등에 치우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의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아의 안전사고에 대해 어떠한 점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영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부모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아 안전사고와 관련한 예방 행동에 있어서 부모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동작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안산시, 안양시에 소재하는 가정보육시설 60개소에 만 0~2세 자녀를 취원시키고 있는 어머니 180명과 보육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자료에서 결측치가 없는 어머니 117명과 보육교사 121명 등 총 238명이 본 연구의 실제 분석 대상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어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변인	빈도(%)	
어머니 (n = 117)	연령	20~25세	2(1.7)
		26~30세	42(35.9)
		31~35세	62(53.0)
		36~40세	10(8.5)
		41세 이상	1(0.9)
	학력	전문대졸 이상	65(55.6)
	고졸 이하	52(44.4)	
	취업여부	취업모	37(31.6)
보육교사 (n = 121)		전업주부	80(68.4)
	연령	20~25세	1(0.8)
		26~30세	25(20.7)
		31~35세	49(40.5)
		36~40세	40(33.0)
		41세이상	6(5.0)
	학력	전문대졸 이상	54(44.6)
		고졸 이하	67(55.4)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43(35.5)
3~5년 미만	17(14.1)		
5~7년 미만	9(7.4)		
7년 이상	5(4.1)		
영유아 (n = 117)	연령	만 0세	41(35.0)
		만 1세	45(38.5)
		만 2세	31(26.5)
	출생순위	첫째아	75(64.1)
		둘째아	37(31.6)
		셋째아 이상	5(4.3)
성별	남아	61(52.1)	
	여아	56(47.9)	

머니의 평균 연령은 32.1세로 24세부터 42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65명(55.6%). 고졸 이하가 52명(44.4%)였고, 취업모가 37명(31.6%), 전업주부가 80명(68.4%)이었다. 영아의 평균 연령은 18개월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75명(64.1%), 둘째가 37명(31.6%), 셋째 이상은 5명(4.3%)이었고 남아가 61명(52.1%), 여아가 56명(47.9%)이었다. 보육교사의 평균 연령은 35.2세였고 22세에서 49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54명(44.6%). 고졸 이하가 67명(55.4%)이었고 경력은 1년 미만인 47명(38.9%), 1~3년미만이 43명(35.5%), 3~5년미만이 17명(14.1%), 5~7년미만이 9명(7.4%), 7년 이상이 5명(4.1%)이었다.

2. 연구 도구

1) 안전사고 두려움

Hendrickson(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운 안전사고 유형,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해 치료비 부담, 사고 대처 시 두려움 등 4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3인의 아동학 전공자 2/3 이상의 합의를 통해 검증받았으며, 선답형과 예, 아니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사고 두려움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는 .89이었다.

2) 안전사고 예방 행동

Reichert와 Henricks(199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은 영유아의 사

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운수사고(2문항), 중독사고(2문항), 질식사고(1문항), 화상사고(2문항), 익수사고(1문항), 추락사고(1문항) 등과 관련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카시트 사용, 보행시 지도, 약품 보관, 위험물(탁스와 같은 세제류) 보관, 음식물 안전(핫도그, 팝콘, 사탕, 당근 등의 제공 여부), 콘센트 안전덮개 이용, 온수 온도 확인, 수영장이나 욕조에서의 감독, 계단 오르내리기 지도 등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는 3인의 아동학 전공자 2/3 이상의 합의를 통해 검증받았으며, 예/아니오 응답과 선답형 질문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는 .87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1차로 작성된 척도가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유아교육 전공 강사 2명에게 문항 검토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가정어린이집 3개소의 어머니 10명과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3일에서 6월 2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조사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동작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안산시, 안양시에 소재하는 가정보육시설 중 임의로 60개소를

<표 2> 안전사고 두려움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차이

내용	구분	단위: 명(%)		χ^2
		어머니(n = 117)	보육교사(n = 121)	
두려운 안전사고 유형	질식사고	27(23.1)	36(29.8)	24.12***
	추락사고	35(29.9)	26(21.5)	
	화상사고	21(17.9)	22(18.2)	
	익수사고	12(10.3)	9(7.4)	
	중독사고	22(18.8)	28(23.1)	
장애에 대한 두려움	예	102(87.2)	101(83.5)	.79
	아니오	15(12.8)	20(16.5)	
상해 치료비 부담	예	34(29.1)	110(90.9)	100.32***
	아니오	83(70.9)	11(9.1)	
사고 대처 시 두려움	매우 두렵다	59(50.4)	55(45.5)	8.96**
	약간 두렵다	49(41.9)	45(37.2)	
	별로 두렵지 않다	7(5.9)	15(12.4)	
	전혀 두렵지 않다	2(1.7)	6(4.9)	

** $p < .01$, *** $p < .001$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정보육시설에 2008년 7월 2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전화를 하여 만 0~2세 영아의 어머니 3명과 만 0~2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3명을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2008년 7월 9일에서 7월 13일까지 각 시설에 설문지를 보내고 2008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각 시설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131부(회수율 72.8%)가 회수되었고 교사용 설문지는 142부(회수율 78.9%)가 회수되었다. 이중 결측치가 없는 어머니 117명과 보육교사 121명 등 총 238명이 본 연구의 실제 분석 대상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은 χ^2 검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안전사고 두려움

안전사고 두려움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의 안전사고 두려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두려운 안전사고 유형에 있어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29.9%)을 가장 많이 보고했고, 다음으로 질식사고(23.1%), 중독사고(18.8%), 화상사고(1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는 질식사고에 대한 두려움(29.8%)을 가장 많이 보고했으며 다음으로 중독사고(23.1%), 추락사고(21.5%), 화상사고(18.2%) 순으로 나타났다.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머니(87.2%)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83.5%)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해 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은 상해 치료비 부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가 90.9%로 많았으나 어머니들은 29.1%만이 상해 치료비 부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대처 시 두려움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들(92.3%)이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82.7%)에 비해 사고 대처 시의 두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2. 안전사고 예방 행동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차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차이

내용	구분	어머니(n = 117)	보육교사(n = 121)	χ^2	단위: 명(%)
카시트 사용	예	41(35.0)	22(18.2)	46.13****	
	아니오	76(65.0)	99(81.8)		
보행시 지도	예	88(75.2)	110(90.9)	12.04****	
	아니오	29(24.8)	11(9.1)		
약품 보관	예	56(47.9)	112(92.6)	61.74****	
	아니오	61(52.1)	9(7.4)		
위험물 보관	예	29(24.8)	103(85.1)	69.33****	
	아니오	88(75.2)	18(14.9)		
음식물 안전	예	70(59.8)	94(77.7)	24.76**	
	아니오	47(40.2)	27(22.3)		
콘센트 안전덮개	예	86(73.5)	100(82.6)	1.65	
	아니오	31(26.5)	21(17.4)		
온수 온도 확인	항상 확인한다	61(52.1)	82(67.8)	4.31	
	가끔 확인한다	41(35.1)	38(31.4)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15(12.8)	1(0.8)		
수영장이나 욕조에서의 안전	예	59(50.4)	66(54.5)	1.60	
	아니오	58(49.6)	55(45.5)		
계단 오르내리기 지도	예	71(60.7)	82(67.8)	1.49	
	아니오	46(39.3)	39(32.2)		

p < .01, *p < .001

〈표 3〉에 의하면 카시트 사용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경우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모두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나 보육교사들(81.8%)이 어머니들(65.0%)에 비해 카시트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 시 지도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바깥에서 영아에게 인도로 다니게 하거나 영아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머니들(75.2%)보다 보육교사들(90.9%)이 이러한 지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 보관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육교사들(92.6%)이 어머니들(47.9%)보다 안전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한 락스 등의 세제류와 같은 위험물의 보관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육교사들(85.1%)이 어머니들(24.8%)보다 위험물 보관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핫도그, 팝콘, 사탕, 당근 등과 같은 위험한 음식물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육교사의 77.7%가 이러한 음식물을 영아에게 제공하지 않는 반면 어머니들은 59.8%만이 영아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센트 안전덮개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들(73.5%)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82.6%) 모두 콘센트 안전덮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그같은 양상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화상 예방을 위한 온수 확인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어머니들보다 뜨거운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영아의 물놀이 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영아 곁에서 계속해서 감독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어머니(50.4%), 보육교사(54.5%) 모두 약 반반씩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영아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안전지대로 영아의 손을 잡거나 계단 난간을 잡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모두 60~70%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이들 가정보육시설에 자녀를 취

원시키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추락사고와 사고 대처 시 두려움을 가장 높게 보고했으며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은 질식사사고와 상해 치료비 부담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와 질식사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정과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의 주거환경에서 계단이나 베란다 등은 주요 상해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어머니들이 추락위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주로 아파트 단지내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락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질식사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영아들이 장시간 집단으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데서 나타나는 개별 영아에 대한 교사의 보살핌이나 통제의 부족과 영아의 위험 인식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생후 20개월의 영아가 보육시설의 점심식사에 포함된 콩 반찬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서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연합뉴스, 2009. 10. 15) 등이 있었다.

상해 치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시설 영유아에게서 일어난 사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감독자인 보육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비용 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보험의 보상액수와도 관계가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배상보험 보상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1억원이고 상해의 경우는 최대 1,500만원이지만 실제로 최대금액까지 보상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부모가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고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도 생긴다. 보육교사의 상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는 보육시설의 낮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율도 한 몫 하는데, 여성가족부(2006)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의 76%만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별 보육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보험이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보상금액과 낮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율로 인해 보육교사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상해 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한편 사고 대처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 및 학령전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사고경험을 조사한 김일옥과 신선화(2002)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의 70%가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을 정도로 사고발생율이 높았으나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는 접해보지 않은 경우가 53%였다. 따라서 응급처치 및 사고 대처 교육이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수사고, 중독사고, 질식사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카시트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보행지도, 약품보관, 위험물 보관, 위험한 음식물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어머니들보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사용율은 어머니와 보육교사 공히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카시트 사용율(18.2%)이 어머니들의 카시트 사용율보다 낮았다. 어머니들의 카시트 사용율은 35.0%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민아(2000)의 연구결과에서 보고한 어머니 카시트 사용율 12%와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22.4%, 이자형과 이용화(2007)의 29.7%,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2008)에서 유아 탑승차량 1,008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16.2%보다는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카시트 사용율보다는 현저히 낮았는데, 독일의 카시트 사용율은 96%이며 미국은 94%, 스웨덴 93%, 영국 92%, 캐나다 87.1%, 일본 52.4% 등이다(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08).

카시트의 사용은 미국소아과협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Rhodes & Iwashyna,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 제160조 제2항 제1호를 통해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의 장착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에서는 보육시설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킬 때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카시트 사용율이 18.2%로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은 가정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의 구비 정도가 매우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카시트 구입가격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카시트의 보급·확산이 지체되고 보육시설에서조차 사용율이 저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이나 무상으로 카시트의 구매 및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영아 보행지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 모두 바깥에서 영아에게 인도로 다니게 하거나 영아

의 손을 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머니들(75.2%)보다 보육교사들(90.9%)이 이러한 지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보육교사들이 영아에게 보행안전 지도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보행안전지도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보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안전교육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보행지도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보행안전이 곧 자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발달특성과 보행안전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행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아는 개방된 외부 공간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산만해지면서 마구 뛰어다니는 특성이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위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걷도록 하는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어머니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약품 보관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92.6%)이 어머니들(47.9%)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생활안전연합(2007)이 어린이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2006년 9월에서 10월까지 전국의 어린이집(514개소), 유치원(468개소), 초등학교(642개소)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6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도 전체 가정의 84.4%가 약품 용기를 구별없이 사용하여 영유아 약품 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제류 등의 위험물 보관에 있어서는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85.1%)이 어머니(24.8%)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생활안전연합(2007)의 조사에서도 위험한 도구나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가정이 88.2%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독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제공에 대해서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77.7%)이 어머니들(59.8%)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보육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사고 유형이 질식사고인 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나 영아돌연사가 종종 발생한다. 질식사고는 5분내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영아를 돌보는 교사나 어머니는 질식과 관련된 응급처치 기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실생활 속에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발생한 질식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아를 돌보는 보육자는 평소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과 같은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콘센트 안전덮개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들(73.5%)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82.6%)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들의 콘센트 안전덮개 이용율은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원구, 충청북도 청원군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 중 가정내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설치율 49.8%(한국생활안전연합, 2009)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한국생활안전연합(2009)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대상이 수도권 가정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만 0~2세 영아의 부모들로서 이들이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려 안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상 예방을 위한 온수의 온도 확인에 있어서는 어머니들(항상확인 52.1%)보다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항상확인 67.8%)이 좀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머니 10명 중 5명, 보육교사 10명 중 3~4명 정도가 온수의 온도를 항상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수로 인한 영아 화상사고의 빈발성과 화상 상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화상사고를 당한 영아는 귀한 생명을 잃게 되거나 화상 상해 후 남게 되는 신체적 상해, 외관상의 후유증, 운동장애로 신체상, 자존감을 손상받게 되어 일생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영유아 화상사고는 85% 이상이 열탕화상에 의해 일어난다(정재현, 최원진, 윤대원, 1991;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한상훈, 김진환, 1986). 따라서 어머니들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뜨거운 액체 및 온수로 인한 화상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욕조나 수영장에서 안전지도와 계단에서의 안전지도에 있어서는 어머니들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 모두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이나 욕조에서 영아가 물놀이를 하는 경우 계속해서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어머니와 보육교사 모두 10명 중 5명꼴이었는데, 물놀이 시 자녀 혼자 방치하는 가정이 75.7%로 나타난 한국생활안전연합(2007)의 조사 내용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물놀이 안전사고는 1~9세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중 2순위(통계청, 2009)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고이며, 대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나 보육교사가 물놀이 시 영아 혼자 방치하는 비율이 약 50%라는 사실은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

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영아를 돌보는 어머니와 보육교사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안전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계단 오르내리기 지도는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67.8%)이 어머니들(60.7%)보다 좀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30~40% 정도가 계단 오르내리기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아 안전지도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계단에서의 영아 추락사고의 위험성과 그 예방, 지도방법 및 사고 시의 대처 등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이 보이는 두려움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실재를 반영하고 특성화하여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어머니들은 추락사고와 안전사고 대처 측면의 두려움을 많이 보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사고 대처 시 두려움은 어머니들의 응급처치 실시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임승주 외(1996)의 연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36.5%에 불과했고, 김일옥과 신선화(2002)의 연구에서는 47.0%로 응급처치 교육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이 개발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들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 측면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였는데, 위험물 및 약품 보관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행동이 특히 취약하였으므로 영아 중독사고와 관련된 부모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카시트 사용을 또한 낮은 편이었는데, 1~9세 아동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 1순위가 바로 운수사고(통계청, 2009)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교육이 심도있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영아의 질식사고와 관련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영아 배상책임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보상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보육시설 안전사고는 민영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내용이나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김혜금, 2009). 다행히 2009년 10월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축소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운수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알게 하고 카시트 사용의 중요성 및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모두 영아의 화상, 익수, 추락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 예방 행동이 미흡하였으므로 이들 사고유형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한정하여 이들 지역의 가정보육시설에 영아를 취원시키고 있는 어머니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결과 및 연구결론이 유도되었으므로 전체 영아의 부모와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를 돌보는 보육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 보육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에는 유아의 보육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인 접근방법을 병행하지 못한 채 양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영아의 어머니들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가 느끼고 있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사고 예방 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는 영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와 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김대원(1997). 영아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사자의 요구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아(2000). 안전벨트 착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옥, 홍혜경, 지성애(1999). 농어촌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7, 115-143.
 김일옥, 신선화(2002). 영유아 및 학령전 아동의 안전사고 및 어머니의 응급처치 정보 접촉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8(2), 174-182.
 김혜금(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정 안전지도 방법과 유아의 상해위험행동간 관계. **유아교육논총**, 17(1), 81-99.
 김혜금(2009).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부모와 보육시설장의 인식. **아동학회지**, 30(4), 1-14.

김혜금, 김명순(2007).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5(2), 33-50.
 남혜경(2002). 보육시설의 사고 특성과 관련요인 분석.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4, 223-243.
 박영례, 김정희, 최미혜(2006).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아동간호학회지**, 12(4), 478-485.(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건복지부(2009).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성은현, 윤선화, 정윤경(2002).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교통안전교육 실태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1, 25-48.
 신동주(200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놀이시설물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5, 223-241.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2008). **국내 카시트 장착 현황 및 개선 방안**. 서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여성가족부(2006).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연합뉴스(2009. 10. 15). 어린이집 콩 반찬에 뇌손상, 관리자 책임 8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18523&from=2009101522>에서 2009년 10월 22일 인출
 이수재, 이진숙(2006).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 1-15.
 이순자(2006).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에 관한 실태 연구: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연구**, 9, 55-70
 이은경, 안효진(2006). 유아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사고예방실천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5-22.
 이자형, 이용화(2007). 유아와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유아용 차량 내 보호장치 이용 실태. **부모·자녀건강간호학회지**, 10(2), 110-122.
 이재연(1995).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영유아보육학**, 2, 39-57.
 이희정(1997). 보육시설 안전에 대한 종사자와 학부모의 요구도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승주, 고영주, 김효숙, 이연희, 김연미, 김은주 외(1996). 응급실 내원전 응급처리 현황 분석. **응급간호학회지**, 5, 69-83.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1997).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유아교육연구**, 17(1), 23-44.
 정인자, 이재연(1998).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보육 환경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4, 329-351.

- 정재현, 최원진, 윤대원(1991). 화상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구급의학회지**, 6(1), 27-36.
- 통계청(2008). **사망원인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9).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통계청 보도자료(2009. 5. 6).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OECD국가 비교. http://kostat.go.kr/board_notice/BoardAction.do?method=view&board_id=144&seq=57&num=57&parent_num=0&page=9&page_name=all_list&kind_id=2&catgrp=nso2009&catid1=k04__0000&catid2=k04b__0000&catid3=&catid4=에서 2009년 10월 2일 인출.
- 하나미(1999).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생활안전연합(2007). **어린이안전사고 실태 조사**. 서울: 한국생활안전연합.
- 한국생활안전연합(2009). **어린이안전사고 실태 조사**. 서울: 한국생활안전연합.
-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어린이 화상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생활안전연합.
- 한국소비자보호원(2001).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2007).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상훈, 김진환(1986). 서울대학교 병원 화상치료실에 있어서의 임상적 고찰. **대한성형외과학회잡지**, 13(4), 481-487.
- 홍명희, 정영숙, 장혜자(2004). 유아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경험 및 부모의 인식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41-749.
- 홍계경, 지성애, 김영옥(1998).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3, 315-340.
- 황옥경(2004).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교수논집**, 16, 543-561.
- Beaty, J. J.(2004). *Safety in preschool programs*. Columbus, Ohio: Merrill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Series.
- Gulotta, C. S., & Finney, J. W.(2000). Intervention models for mothers and children at risk for injuri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3(1), 25-36.
- Hendricks, C. M., & Reichert, A.(1996). Parents' self-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66(7), 247-251.
- Hendrickson, S. G.(2008). Maternal worries, home safety behaviors, and perceived difficulti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0(2), 137-143.
- Langley, J., & Silva, P.(1982). Childhood accidents-parents' attitudes to prevention. *Australian Pediatric Journal*. 18, 247-249.
- Lewis, T., DiLillo, D., & Peterson, L.(2004). Parental beliefs regarding development benefits of childhood injuri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 S61-S68.
- Mack, K. A., Gilchrist, J., & Ballesteros, M. F.(2007). Unintentional injuries among infants age 0-12 months. *Journal of Safety Research*, 38, 609-612.
- Morrongiello, B. A., & Dayler, L. A.(1996). Community-based study of par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related to childhood injuri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383-388.
- Morrongiello, B. A., Midgett, C., & Shields, R.(2001). Don't run with scissors: Young children's knowledge of home safety rul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 105-115.
- Morrongiello, B. A., Ondejko, L., & Littlejohn, A.(2004). Understanding toddlers' in-home injuries: II. Examining parental strategies, and their efficacy, for managing child injury risk.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6), 433-446.
- Pickett, W., Streight, S., Simpson, K., & Brison, R. J.(2003). injuries experienced by infant children: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analysis. *Pediatrics*, 111(4), 365-370.
- Powers, T. G., & Chapiesski, M. L.(1986). Childrearing and impulse control in toddlers: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1-275.
- Reichert, A., & Hendricks, C. M.(1996). Parents' self-reported behaviors related to health and safety of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School Health*, 66(7), 247-251.
- Rhodes, K. V., & Iwashyna, T. J.(2007). Child injury risks are close to home: Parent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safety. *Matern Child Health Journal*, 11, 269-275.
- Safe Kids Canada(2006). Child & youth unintentional

- injury: 1994-2003 10 years in review. <http://www.safekidsCanada.ca/safekidsCanada/>에서 2009년 9월 2일 인출.
- Schwebel, D. C., & Bounds, M. L.(2003). The role of parents and temperament on children's estimation of physical ability: Links to unintentional injury preven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8*, 505-516.
- Schwebel, D. C., & Brezaussek, C. M.(2004). The role of fathers in toddlers' unintentional injury risk.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1), 19-28.
- Sinclair, K. A., Morrongiello, B. A., & Dowd, M. D.(2008). Parenting Behaviors and attitudes about supervision among parents of acutely poisoned children. *Ambulatory Pediatrics, 8*(2), 135-138.
- Taylor, H. G., Yeates, K. O., & Wade, S. L.(2001). Bidirectional child-family influences outcomes of traumatic brain injury in childre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7*, 755-767.
- Tertinger, D. A., Greene, B. F., & Lutzker, J. R.(1984). Home saf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one component of an ecobehavioral treatment program for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Analysis, 17*, 159-174.

접 수 일 : 2009년 11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월 8일